

[P2-12]

남성 관상혈관 질환자의 체격과 당화혈색소 수준

이옥희, 김보하, 이승환, 박성욱, 박찬정

용인대학교 식품영양학과,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, 진단검사의학과

식생활의 서구화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한 체지방의 증가 및 복부 내장 지방의 증가로 인한 대사적 증후군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남성의 경우 40대 이상에서 당뇨나 고혈압 발생위험이 급증한다. 고혈당이나 당뇨병은 혈관 합병증을 유발하기 쉬우며 이는 말초 혈관 분 아니라 관상 혈관과 같이 심장기능에 중요한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어 협심증,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관상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게 된다.

본 연구에서는 남성 관상혈관 질환자의 혈액 당화 혈색소 수준 및 체격 상태를 일반 건강한 남성과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. 조사대상자는 서울 A 병원에서 관상혈관 조영술을 실시하는 질환자 중 40대 이상의 남성을 선정하여 건강한 남성과 비교하였다. 건강인과 관상혈관질환자의 나이는 각각 50.1세, 56.2세, 신장은 166.6cm, 164.8cm, 체중은 70.1cm, 66.1kg, 체질량지수는 각각 25.2kg/m², 24.4kg/m²를 나타내어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또한 허리둘레, 둔부둘레, 허리-둔부둘레비나 체지방량 및 체지방비율은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중심성 비만과 전신의 체지방 축적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. 그러나 혈액의 당화혈색소 수준은 질환자의 경우 6.4%로, 정상인의 5.8%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($p<0.05$). 본 연구에서 관상혈관 질환자에서 장기적 혈당 조절상태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수준이 높지만, 체격의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혈당조절에 체지방 축적이나 중심성 비만이 별다른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연구에 참여한 건강한 성인대상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또한 두 집단의 나이 차이에 부분적으로 기인할 것으로 보여 더 많은 통제 집단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.